주간농업 농촌동향	도축장 36개로 통폐합, 대형 패커 육성

2011.09.19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9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「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❑ 문제제기

❍ 현재 국내에서는 **87개소의 도축장(79개소 영업중)**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며, 그 결과 위생적인 도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.

※ 도축장 가동율 : 소 32%, 돼지 59%

- 실제로 국내 도축장의 **부채비율은 약 800%**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이는 육가공업 평균비율인 252%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

❍ 도축장은 냉방시설 유지와 세척 등에 필요한 전력·연료비가 총 경비의 20% 정도 소요되지만, 영세한 도축장은 비용절감 문제로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

❍ 이에 ①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 도축장 등을 통폐합하고, ②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며, ③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·유통업체(Packer)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

※ 패커(Packer) : 도축·가공·유통 등을 일관해서 처리하는 업체

❑ 주요내용

❍ **영세 도축장 통폐합 구조조정:**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**거점도축장**을 선정하여 도축·가공·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

※ 현재 87개소인 도축장을 **'15년 이후 규모화된 36개소 내외**의 거점·통합 도축장 중심으로 운영

- 도축장의 위생수준·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
- 금년 **9월 "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"**에서 확정한 후 금년도분 거점도축장 선정

·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·가공업체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

❍ **위생점검 강화:** 도축장에서 식육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생 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 추진

- 전국 도축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활동 실시

· 위생수준이 열악한 도축장은 수시로 기동단속

·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HACCP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,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계획

· 아울러, 중앙정부는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도축장 위생감독 실태를 수시 점검할 계획

-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·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**포장유통하도록 의무화**하며,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 등도 강화할 계획

❍ **경쟁력있는 대형팩커 육성:** 장기적으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(Danish Crown)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·유통주체(Packer)를 육성하여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

- **농협의 안심축산**을 대형 패커로 육성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평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

· (농가)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전담

· (지역축협 등) 산지조직화의 주체로 축산물 공급 전담

· (안심축산) 유통과 판매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

- 이를 위해 수도권에 안심축산의 핵심 가공,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종합 물류센터 건립

· 농협의 공판장과 가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권역별 안심축산 공급기지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